

'G·D 폴리' 네덜란드와 투자·설치 합작

<Gwangju·Dutch>

'맛' 담을 '쿡 폴리' 유명 셰프 제작 참여

뷰 폴리, 미디어아트와 결합
사진 찍고 추억 남길 명소로

뽀뽀 폴리, 8개팀 현상공모
대국민 공모 당선작 작품화



지난해 10월 광주폴리투어에 참여한 네덜란드 창조산업지원기금 관계자들이 '광주천 독서실'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문화전당 주변에 4개 설치...윤곽 드러난 3차 광주폴리

요리사와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3차 광주폴리는 장르와 국적을 넘나드는 작품으로 구성된다. 또 처음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과도 연계한다.

18일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3차는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올해 4개가 설치될 계획이다.

후보지는 문화전당 주변으로 정해졌다. 폴리는 문화전당 내부 또는 주변에 2개, 양림동·광주천·광주공원 등지에 2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당초 KTX 송정역, 첨단지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등 여러 지역이 거론됐었다. 재단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관심과 방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의영 총감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3차 광주폴리를 성공시켜 1·2차도 자연스

레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의도했다.

문화전당 주변에는 '뽀뽀폴리'가 설치된다. 이 작품은 지난해 처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대국민 아이디어' 우수상 이상 당선작 중 하나를 발전시킨다. 당시 최우수상에 뽑힌 'Folly as Urban Library'는 도심 건물 사이에 작은 문들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다. 각 문마다 다른 내용을 배치해 시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도다.

현재 재단은 8개 지명 초청팀을 대상으로 3월4일 까지 현상공모(설계·제작·설치)를 진행 중이다. 각 팀은 총감독과 광주폴리작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건축가와 아티스트로 구성됐다.

팀은 김찬중(건축가)·진시영(작가), 양수인·황중환, 신승수·주라영, 조항만·손봉채, 임승환·김도균, 선형중·박제성, 최재영·강서경, 김진우·김도경 등이다. 당선팀에게는 작품 제작·설치권이 부여되

며 1억7000만원이 지원된다. 우수작 1팀은 상금 500만원, 입선작 2개팀은 각 250만원을 받는다.

네덜란드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참여한 'G/D (Gwangju/Dutch) 폴리'도 선보인다. 네덜란드는 전세계적으로 폴리가 많은 나라로 꼽힌다.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적인 네덜란드 창조산업지원기금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광주를 방문해 폴리투어를 진행했다. 리서치, 국내홍보비용 등 자금 6800만원 지원 의사를 밝혔고 12월에는 전의영 총감독 등이 네덜란드를 방문해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오는 3월 MOU를 체결한 후 네덜란드 작가들이 약 한달간 양림동, 동명동 등에서 리서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뷰(View) 폴리'는 문화전당 내·외부에 선보이는 미디어아트 결합 작품이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작품이 아닌 시민들이 폴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문화전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요리사가 참여하는 폴리도 만들어진다. '쿡(Cook) 폴리'다. 광주를 대표하는 정체성 중 하나인 '맛'을 담는다. 국내 유명 셰프가 참여할 예정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미니폴리'도 검토 중이다. 여유 예산에 따라 단순 조형물 형식으로 1~3개 작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작가와 셰프 등은 3월 중순 작가 선정 워크숍을 통해 결정된다. 재단은 참여작가가 선정되면 설치장소, 형식,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3차 폴리는 여러가지 흥미로운 주제로 준비해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폴리 III 대국민 아이디어' 최우수상에 선정된 'Folly as Urban Library'.

클래식과 그림자극의 만남

광주시향·극단 '영' 23일 11시·7시30분 '잠자는 숲속의 미녀'



클래식 음악과, 동화, 그리고 그림자극이 만났다.

지난 2014년부터 '불새' 등 그림자극과 클래식 연주가 어우러진 작품을 무대에 올렸던 광주 시립교향악단이 올해도 공연을 준비했다. 23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차이코프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다.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람 연령을 5세 이하로 낮추고, 특히 기존의 오후 7시 30분 공연과 함께 오전 11시 공연을 추가 진행한다.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동화를 원작으로 삼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음악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4

시간 정도의 원곡을 한시간 분량으로 줄여 공연할 예정이다. 지휘는 김현수 목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맡는다.

함께 작품을 준비한 극단 '영'은 1986년부터 일본 순회공연을 비롯해 헝가리, 독일, 체코 등 유럽에서 열리는 국제 인형극제에 참가한 그림자극 전문 단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 뿐 아니라 성인을 위한 그림자극 '전람회의 그림'을 제작하기도 했다.

광주시향은 어린이 관객들이 공연을 즐기고 효과적으로 체험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전석 만원, 단체관람 신청과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리에 반하다'...아카펠라 그룹 '제니스' 공연

'천원의 낭만' 22일 광주문예회관

천원으로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는 '행복한 문화 충전 천원의 낭만' 2월 행사가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소리에 반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젊은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를 초청했다. 2008년 구성된 5인조 혼성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는 2015 유럽 세계 아카펠라 대회, 2014 대만 국제 아카펠라 대회, 2014 인천공항 세계 아카펠라 대회에서 우승한 후 싱가포르, 대만 투어 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그룹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보컬매직', '기차 타고', '아이언트 트리' 등 인기를 얻고 있는 창작곡과 함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

께 신나는 재즈 스윙까지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www.gjasia.org.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젊은 극단 '연병' '니美청춘' 무대...21일까지 공동예술극장

젊은 극단 '연병'(연극에 병적인 사람들이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니美청춘'을 무대에 올린다. 21일까지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7시 공동예술극장.

작품의 주인공은 고시생 석구와 만식, 그리고 고시원 총무 미숙이다. 한적한 고시원 앞 벤치, 언제나 그곳을 서성이는 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겠다는 각오를 다지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

다. 과연 이들은 합격 할 수 있을까?

희곡과 연출은 김용호씨가 맡았다. 지난해 공연한 '보이책' 준비를 위해 고시학원 골목에 위치한 연습실을 드나들던 김씨는 식사 시간이 되면 우르르 몰려왔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고시생들의 모습에서 '꿈'에 대해,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김희수·이성재·심은정씨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문의 010-3172-2072. /김미은기자 mekim@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